

日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임박...어민단체 “정부 강력 대처해야”

방출 뎀 한달 내 전남 앞바다 도달...“누가 우리 수산물 먹겠는가”
전남도, 정부와 공동대응...정치권·국제환경단체 계획 철회 촉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수산물 생산기지 전남에서 어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강경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국내외 환경단체와 정치권에서 일본 정부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남도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본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12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정치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을 포함한 국내 반발과 국제 사회 반대에도 13일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해

양 방류를 공식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릴 경우, 관련 절차·공사 소요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방류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국제사회는 보고 있다.

문제는 약 125만844t의 오염수에 섞인 오염물질을 최신 설비를 통해 걸러낸다고 해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잔존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 연구기관 분석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 한 달 이내 전남 앞바다 등 서해와 제주해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앞서 나온 바 있다. 국회 김

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부천병)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지난해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GEOMAR(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동영상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시 세슘(Cs137) 등 핵종 물질이 미량인 Bq/㎖의 경우, 한 달 내에도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 어민단체는 격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오한운 한국전북산업연합회장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절대 안 된다”며 “해류를 타고 원전 오염수가 남·서해로 우리 전남 앞바다로 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누가 우리 생선과 전복, 해조류를 먹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오 회장은 “정부가 국제사회와 연대

해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경섭 김산업연합회장도 “우리보고 김산사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다. 우리김이 전세계로 수출되는데 누가 우리김을 먹겠느냐”며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정치권, 국내외 환경단체도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반대하고, 관련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전세계 시민 18만3754명(건)의 청원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 규정에 따르면 배출 가능한 방사능 총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희석만 하면 무한정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고독성 방사성물질이 앞으로 길게는 한 세기 넘게까지 오염수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린피스 측은

“한국 정부가 국제법을 토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오염수 방류는 현실화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진보당도 이날 논평에서 “다른 주변국에 비해 한국정부가 지난 몇 년간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감”이라며 “일본의 오염수 방출은 국제해양법상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한국정부가 법적인 제재까지 염두에 둔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지사 입장문을 내고 “인류 모두의 공동자산인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것은 인류와 해양생태계를 방사능으로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맹비난했던 전남도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정부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동구민과의 정책 현장대화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동구 미로센터에서 열린 ‘동구민과의 정책 현장대화’에 참석해 인택 동구청장 및 인문·문화예술 활동가 등 주민 30여 명과 동구 주요정책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구, 광주다움 볼 수 있는 곳 육성”
이용섭시장 자치구 순방 재개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자치구 순방을 2년 만에 재개했다.

이 시장은 12일 동구 예술의 거리를 방문해 올해 동구의 역점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문화예술 활동가 등 주민 30여명과 간담회를 했다. 주민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 충장로 복원, 무등산권 생태예술관광 활성화, 어린이복합 문화회관 건립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광주의 얼굴 동구가 가진 광주만의 독특함을 상품화, 브랜드화, 산업화해야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진다”며 “떠나는 곳에서 찾아오는 동구로, 광주에서 가장 발전하는 자치구, 광주다움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부터 16일까지 5개 자치구를 차례대로 방문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중기 러시아 시장 진출 지원

16일 ‘러시장 진출 온라인 세미나’

전남도가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오는 16일 ‘2021 러시아 시장 진출전략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러시아는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전반적으로 교역이 늘고 있다. 미국, 유럽의 경제적 견제로 동북아 지역과 경제협력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북극항로 개발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 등을 통해 유럽에 진출할 교두보가 될 중요한 시장이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이 궁금해하는 러시아의 코로나19 발생 추이, 2021년 경기 전망, 소비 트렌드 변화, 수출 유망품목 등을 소개하고, 사전 접수한 질문에 답변하며, 러시아 인증 절차도 안내한다.

세미나는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통해 이뤄진다. 러시아에 수출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제품 정보와 질문 내용을 기재해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누리집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세미나 이후 러시아 시장 진출을 바라는 기업을 모집해 바이어 매칭, 견본 발송, 화상상담을 실시, 중소기업의 러시아 시장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진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중소기업이 러시아 시장에 계속 진출하도록 인증 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을 펼쳐왔다”며 “이번 세미나가 러시아 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농업은 미래생명산업 전남도-농협 상생해야”

김영록 전남지사 강조

김영록 전남지사는 12일 농협중앙회 주관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에 참석해 농협과 전남도와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함평 나산면 소재 나비골농협 육묘장에서 개최된 행사는 이성희 회장과 박서홍 농협 전남지역본부장 등 농협 관계자와 김영록 도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이상익 함평군수, 함평군 관내 농협장 등 50명이 참석했다.

전국 동시 발대식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영농철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한해 풍년농사를 기원하고, 농업인이 1년 동안 필요로 하는 농자재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취지로 전국 1118개 회원 농협을 아우르는 행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달라지고, 농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는 전략산업이자 미래 생명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대표 농도인 전남에서 올해 행사가 개최돼 의미가 크다.

이 회장은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중단으로 농촌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농기계 지원과 농작업 대행사업을 확대하고 농협 임직원의 농촌 일손 돕기를 적극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을 늘리면서 미래 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전라남도, 대한민국이 되도록 농협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농협중앙회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300억원을 들여 대당 2600만원 상당의 농기계 1118대를 회원농협 1대씩 지원하는 농기계 전달식도 진행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대상자 모집

19일까지...농식품 생산·제조 지원

광주시는 “농식품 소비위축으로 판로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식품 제조업체를 돕기 위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1곳 당 2200만원씩 5곳의 농식품 제조업체의 생산, 제조, 가공, 조리 설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4월 5일) 기준 주사무소가 광주시에 소재한 농식품 생산·제조·가공·조리업체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시 생명농업과로 방문, 우편, 이메일(gom3053@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동일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 설비 설치에 필요한 건물의 임차(사용)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최근 5년 이

내 정부지원사업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는 사업 신청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농촌 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검색하거나 시 생명농업과(062-613-3972)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생명농업과 자체심사의 및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중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식품업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낮은 인지도, 마케팅력 부족 등으로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식품업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